

BTS, 백악관 방문 ... 아시안 증오 범죄 논의

방탄소년단(BTS)이 백악관을 방문한다.

백악관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31일 세계적인 케이팝인사이자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음악 그룹 BTS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BTS는 이번 만남에서 코로나19 이후 부상한 아시아인 혐오 범죄와 차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특히 아시아인 혐오·차별이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두드러지는 문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예전부터 아시안 증오 범죄 급증과 싸우겠다는 약속을 말해 왔고, 지난해 5월 증오 범죄를 식별, 조사, 보고하고 더 수월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원과 법 집행을 제공하는



▲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뮤직

코로나19 증오범죄법에 서명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BTS는 다양성·포용의 중요성, 그리고 세계 전역에 희망과 가능성의 메시지를 확산하는 젊은 대로서 BTS의 플랫폼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에서는 반아시아계 혐오 정서가 급증했다. 지난해 3월에는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백인 남성의 총격으로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8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참사 직후 트위터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가 엄청난 고통을 느낄 것"이라며 해당 범죄를 "비미국적(un-American)"이라고 규정하고, "상처받은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와 함께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영화, 칸 필름마켓서 존재감

"이것저것 재고 시간을 끌다가는 다 팔리겠다고 생각하는 듯해요. '일단 사고보자'는 생각으로 한국 영화를 사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프랑스 칸에서 열리고 있는 제75회 칸국제영화제의 필름마켓.

한국 영화를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지난 23일 이곳에 모인 한국 배급사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한국 영화의 위상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인 칸국제영화제는 매년 1만 2천명 이상의 영화인이 몰려 영화를 사고파는 필름마켓으로도 유명하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운영됐지만, 올해에는 예년과 같이 전 세계에서 온 4천여개 작품이 오프라인으로 바이어들에



▲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 마련된 CJ ENM 부스, 사진=CJ ENM

게 선보여졌다.

칸국제영화제 메인 건물인 팔레드 페스티발 지하에 마련된 부스에는 한국 영화를 구매하려는 해외 바이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북미와 아시아에서 판매를 완료하고 칸으로 넘어왔지만 벌써 5건 이상 거래가 성사된 작품도 있다"며 "한국 영화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

던 영국, 중동 국가 등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이후 더 많은 바이어들이 한국 영화에 관심을 보이는 걸 체감한다"며 "두 콘텐츠의 히트 이후, 한국 영화가 다른 나라 작품에 비해 상업적으로는 어느 정도 흥행 보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탕웨이 "박찬욱 감독, 다른 별에서 온 생명체인 줄"



▲ 탕웨이, 사진=CJ ENM 제공

제75회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 '헤어질 결심'에서 주연한 중국 배우 탕웨이가 "박찬욱 감독을 너무 사랑한다"며 "모든 면에서 굉장한 일을 하고 있고 서러처럼 (특별한) 인물을 선사했다"고 말했다.

탕웨이는 지난 2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독님이 아니었으면 서러가 나올 수 없었다"면서 "(박 감독을 보면서) 다른 별에서 온 생명체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웃었다. '헤어질 결심'은 변사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해준(박해일 분)이 사망자의 아내 서러에게 사랑을 느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탕웨이는 신비스럽고, 욕망에 충실하면서도 망설이는 서러 역을 소화했다.

탕웨이는 "저는 미래를 희망적이고 밝게 봅니다. 서러도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지 저와는 다른 상황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못 사는 것뿐이죠. 만약 시작점이 달랐다면 저 같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탕웨이는 영화에서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하는 만큼 언어 장벽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탕웨이는 한국어 발음만 외워 대사를 읊는 대신 한국어 문법과 말하기, 듣기 등을 익히기 위해 교사를 두고 공부했다고 한다. 탕웨이는 언어 말고는 촬영 내내 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탕웨이는 올해 칸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의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숫자퍼즐 정답

9	3	2	1	4	6	8	5	7
1	4	5	2	8	7	9	6	3
6	8	7	3	5	9	1	2	4
2	5	9	6	7	4	3	8	1
4	6	3	8	1	5	2	7	9
7	1	8	9	2	3	5	4	6
3	2	1	4	6	8	7	9	5
8	7	6	5	9	1	4	3	2
5	9	4	7	3	2	6	1	8

EXPO LENDING
Gale Financial DBA Expo Lending
Equal Housing Lender DRE: #02064448 NMLS: #1721928

Sean Kim
Senior Loan Agent

투자용 주택 스페셜 프로그램

신속한 융자 필요하신 분! 융자 상담 도와드립니다. 타주 융자 가능

- No Income Program - Credit 640부터, 20% down 가능
- Conventional Loan • VA/FHA Loan
- Refinance/ Rate & Term/ Cash-out

NMLS #343413 **213.591.2535**
seanhansu@gmail.com
18725 E. Gale Ave. Ste. 100, City of Industry, CA 91748